

한국에서의 “재해 회담”, 효고행동강령(HFA) 진전 환영



Dulamdorj Togooch 몽골 소방방재청장(왼쪽)이 효고행동강령 덕분에 긍정적인 성과를 얻었다고 말하고 있다.

2014년 3월 26일, 동북아시아의 재난관리 고위공무원들과 전문가들이 제주도에 모여 재난위험감소(DRR)의 국가적 차원의 발전을 위해 일관성 있고 인도력 있는 효고행동강령(Hyogo Framework for Action)에 대한 지지를 표현했다.

중국, 일본, 몽골, 한국의 대표자들은 2015년 3월에 있는 제 3회 UN 세계 재난위험감소 회담(WCDRR)에 합의하면서, 효고행동강령(2005년~2015년)을 더 확고하게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공무원들과 전문가들은 제주도에서 열린 동북아 재난위험감소 기술공유(DDR Technology Sharing for North-East Asia)와 재해손실에 대한 <한중일 방재전문가 회의> 개최식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말했다.

Dulamdorj Togooch 몽골 소방방재청장은 몽골 정부는 효고행동강령을 우선적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방재대책을 위한 동반자적관계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재해관리제도개선, 인력기술관리, 재해 학술연구 발전, 재해위험평가에 대한 능력개발, 대해위험 감소에 대한 국민의 관심향상과 같이 수 많은 긍정적인 결과들을 이뤄냈다.”라며 행동강령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2005년에 우리는 효고행동강령을 채택하면서, 아시아와 태평양의 재해관리는 많은 변화를 이뤄내고 있다. 국가들은 마침내 개발정책과 계획에 재해위험감소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렇지만, 아시아 태평양에는 아직까지도 커다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으며, 우리는 효고행동강령 내에서 달성해야 할 많은 목표들을 연구하고 계속해서 여러 국가들에게 재해관리분야 발전을 권장하기에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한 “모든 재해는 지방지역수준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들을 효과적으로 다

루면서 얻은 교훈들 및 실제 사례들을 공유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다.”라며 이번 포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중국 민정부 내 재해 감소센터에서 온 Kun Gao씨는 중국 내 <전형적인 재해>에 대해 언급했다. “중국 내 평균 백만 명의 사람들이 대피하고, 2천 5백만 가구들이 피해를 입거나 파괴되며, 6백만에서 8백만 명의 사람들이 48억 3천만 달러가치의 직접적인 경제손실을 입고 임시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 라며 재해로 발생한 중국의 대규모 피해를 설명했다.

Kun Gao씨는 이어서 “재해위험관리 면에서 주목할만한 진전이 있다. 방대한 사회동원, 기술의 발전, 더 훌륭한 지식정보의 적용을 통해서 사람들의 재해문제 인식개선, 재해관리 방식개선과 같이 다양한 면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다.”라며 교훈을 통한 재해위험관리 결과의 긍정적인 실례를 들었다.

나카지마 소이치 일본 내각부 국제협력재난관리 사무실의 책임자는 “효고행동강령은 일본을 포함한 많은 나라에 재난위험감소를 고취시키기 위한 하나의 상징이다. 최근 일본에서 발생한 대규모 재해경험은 일본의 재해 관련 시스템이 상당히 개발되어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배워나가야 할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2015년은 더욱 완벽하게 개정된 새 재해위험감소강령으로 인해 매우 중요한 해이다.”라며 내년에 대한 기대도 표현했다.

김계조 한국 소방방재청장은 “공통적으로 지닌 재해위험에 보다 잘 대응하기 위해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협력은 중요하다. 재해 예방과 경감 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필수적이다.”라고 국가 간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중일 방재전문가 회의>는 2013년 10월 한중일 재해관리 책임자들이 동의한 여섯 개 주제로 진행되었다.

(재해정보의 접근성 발전, 재해 대처와 복구분야 합동연구, 재해위험을 포함한 기후변화 사례 공유, 재해관련 도상훈련(토의식 훈련) 횟수 증가, 훈련 파트너십 강화, 2014년 6월 아시아 지역플랫폼과 2015년 3월 세계 재난위험방지 회담 이전의 지역간 의견 공유)

이날 한중일 협력사무국(TCS)의 정부대표자들뿐만 아니라 대학, 과학연구소, 개발기관, UNISDR, UNESCAP, UNDP도 포럼에 참석했다.

8개국에서 온 총 43명의 참가자들이 참석한 이 포럼은 한국소방방재청과 UNISDR의 세계교육훈련기관(GETI), UNESCAP, 한중일 협력사무국(TCS)이 공동으로 개최했다.

날짜:

2014년 3월 26일

출처:

- United Nations Office for Disaster Risk Reduction - Regional Office for Asia and Pacific (UNISDR AP)
- United Nations Office for Disaster Risk Reduction - Hyogo Liaison Office (UNISDR Hyogo)
- UNISDR Office for Northeast Asia and Global Education and Training Institute for Disaster Risk Reduction at Incheon (UNISDR ONEA-GETI)

키워드

주제:

재해위험관리(Disaster Risk Management)

국가:

중국, 일본, 몽골, 한국

지역:

아시아